

## 제한된 문화자본과 정체성의 혼종화:

한국전공 베트남 청년세대의 현실과 대응\*

육수현\*\*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제한된 문화자본으로 역할 하는 한국전공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베트남 청년세대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들은 한국전공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었지만, 한국기업에서 경험하는 민족적 차별과 글로벌 엘리트가 아닌 심부름꾼이 되는 환경 그리고 반주변부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가지는 제한성 때문에 불안한 미래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은 베트남 청년들이 정체성을 좀 더 역동적으로 선택하고 규정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는데, 수동적 자세로 수용하기보다 한국어를 도구적으로 활용하거나 베트남 사회와 스스로를 경계 짓는 등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전공 베트남 청년세대의 정체성이 혼종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공을 선택 한 후 겪게 되는 일련의 경험들은 정체성이 혼종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전공 베트남 청년세대가 한국적 문화코드를 통해 한국과 한국기업의 이미지와 정보를 유통시켜 재생산하는 주체적 저항행위를 일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하게 된 것이다.

**주제어:** 한국전공 베트남 청년세대, 제한된 문화자본, 정체성의 혼종화, 저항의 재생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2A305559)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breeze284@daum.net

## I. 들어가며

베트남에서 한국(한국어 또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sup>1)</sup>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전공 학생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Kotra 2018), 학과 개설은 25개 대학에 이른다. 한국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 노래, 한국 영화, 한국 음식을 즐기는 1980-1990년대에 태어난 베트남 청년들이 이러한 움직임의 주역이다. 개혁개방(1986년) 이후에 자본주의경제가 베트남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베트남 청년 세대는 외부 문화와 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활용하는 베트남 청년들이 늘어난 것 역시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관계가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활용하는 일을 하면 일반 노동자보다 2-3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에어컨이 나오는 오피스에서 외국인과 함께 일을 하는 글로벌한 인재”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이 베트남 청년세대가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로 돈을 벌며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인과 교류하는 1980-1990년대 생 베트남 청년세대는 글로벌한 경제와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행위와 가치판단의 기준, 삶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한국어를 통해 얻어진 경제적 지위와 함께 한국적인 미(화장, 패션)에 익숙해지고, 한국문화가 반영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보내는 ‘한국적 성향을 보이는 베트남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베트남 내 시선은 다양하다. 외국어를 활용해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하는 차세대 글로벌 인재, 확대되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는 선택된 존재, 한국어 실력은 부족한

---

1) 이 논문에서 말하는 ‘한국전공’은 베트남 내 대학교나 전문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것을 말한다.

데 환경이 좋아 일을 할 수 있는 ‘돈만 밝히는 무리’ 등이 그것이다. 어느 시선이 한국전공자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이 한국전공자의 현재일 수 있다.

다원적인 정체성은 국적, 언어, 민족성, 정치, 직업 등과 같은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여러 요인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이 암묵적으로라도 선택되기 때문에 “정체성을 단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센 2015: 73). 스스로가 바라보는 대로 정체성을 생각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정체성을 생각하든, 정체성은 특정한 제약 내에서 선택되기 때문이다(센 2015: 75).

이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며 겪게 되는 경험들이 한국전공자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정체성의 혼종화 속에서, 반주변부 국가인 한국의 언어가 갖는 문화자본의 제한성과 개발도상국의 엘리트라는 여건에서 한국전공자들의 실천이 어떤 양태를 띠는지를 민족지적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어·한국학을 대학에서 전공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1980-1990년대 생이다. 이들은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으로서 친(親)한국적인 면모를 보이거나,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 Gerbner 1998: 김장현 2012: 5 재인용)<sup>2)</sup>에 의해 한국통(通)이 될 수 있는 집단이다.

2) 배양 효과는 대중 매체가 사람들의 현실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으로 김장현(2012)은 한류상품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K-pop을 즐기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언어습득 또는 취미를 위해 장기간 접할 수밖에 없는 한국전공자들은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하며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다.

1980-1990년에 태어난 베트남 80·90세대는 개혁개방 이후 급격하게 변하는 베트남의 현재를 살아가는 계층으로, 외국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며, 서구적 또는 글로벌적 마인드와 새로운 취향에 목말라있다. 이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교육의 압박을 많이 받기 시작한 세대이면서, 대다수의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베트남 사회에서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신분 이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청년 집단이다. 한국전공 80·90세대 역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고 글로벌 인재로서 사회문화적 지위를 얻기 위해 세련되고 차별화된 자신을 드러낼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을 선호한다.

이 논문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현지조사(fieldwork)와 2015년 1월과 2016년 6월과 2018년 7월에 이루어진 추가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둔다. 이 기간 동안 연구지는 한국전공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장(field)인 학교, 학원, 식당, 회사, 동아리, 한·베 문화행사, 한글날 행사, 입학식, 취업박람회, 유학박람회, 한국관련 학술대회 등에 대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실행하였다.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한 1980-1990년생 한국전공자는 59명이다. 1980년대 생이 24명, 1990년대 생이 35명이다. 전공 선택이유와 교육환경, 직업종류와 급여수준, 그리고 한국어를 활용해 일을 하면서 한국인과 베트남인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80년생과 90년생을 구분하기 위해 생년과 성별만을 따로 적시하였다.

## II. 정체성의 혼종화와 제한된 문화자본

세계화와 함께 도약하기 시작한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접

합들이 벌어지고, 소용돌이친다. 자본을 등에 업고 등장한 외래문물은 베트남의 경제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혼합을 만들어냈고, 이 영향을 받으며 베트남 청년세대가 자라왔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추구하는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다르며,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세대로 지칭되기도 한다. 동시에 미래를 이끌어갈 주축으로서 기성세대와 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다. 세계와 청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튼튼해졌지만 세대사이의 연결은 약해지고 있다.

홀(Hall 1992: 302)은 전 세계적 차원의 상호 의존성이 문화적 정체성의 해체로 이어지고, ‘문화적 소속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는 정체성의 분할과 불안정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동요와 분할 자체가 주체를 규정짓는 기호가 되며, 정체성의 ‘복수화’ 또는 ‘분절’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한다(프록터 2004: 202). 이처럼 베트남 청년세대의 다층적이고 이중적인 정체성은 필연적일 수 있다.

베트남 청년세대의 한국문화와 한국어 수용은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것에서부터 한국을 매개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을 얻게 되는 일련의 경험을 포함한다. 살린스가 외부로부터의 사상, 사물, 풍습이 해당 문화에 의해 흡수되거나 ‘정돈(ordered)’되지만 그 과정 중에 문화 자체가 ‘재정돈(re-ordered)’된다는 문화적 변화의 변증법적 이론을 말했듯이(버크 2009: 170), 이러한 경험은 베트남 청년세대를 구성하는 정체성의 일부를 만들거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트남 청년세대의 일상적 경험과 실천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사회에 의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주성을 간과한다는 비판(기든스 & 서튼 2015: 330)을 위해서라도 일상의 경험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문화적 정체성이 항상 접촉하고 있고, 이런 접촉이 문화적 섞임으

로 이어진다는 뜻을 내포한 호미 바바의 ‘문화의 혼종성’은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융합과 정체성의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바바는 피지배자를 ‘저항하는’ 타자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무대를 혼종성으로 보면서, 저항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동화 과정인 ‘모방’과 의미를 달리했다. 혼합되고 분열된 혼성성의 텍스트로서 식민지 담론 속에서 나타난 타자(지배자에 의해 분류되고 차별받았던 주체)의 ‘부인된’ 인식들(지식들)을 지배담론의 틈새에 개입시킴으로써 권위의 토대에 혼란을 준다(바바 1994: 228-229)는 것이다.

바바는 누구보다 ‘혼종화’를 더 강조했다는데, 혼종적 상태로 유지되거나 고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 문화로 바라보기 위해서다(허다트 2011). 그는 문화를 고정되지 않은 “초민족적(transnational)인 동시에 번역적(translational)”(이경원 2011: 423)이라고 정의하고, 식민지 시대는 이러한 문화들이 맞물리는 장을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모든 문화는 해체와 재구성을 오가는 과정을 거듭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설명처럼, 현대는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문화적 흐름에 의해 다양한 문화가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있는 저개발국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투자지역일수록 역동적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

혼종적이라는 본질은 과정적이고 중층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어서 주체의 확정적 정체성이 존립될 수 없다(박민수 2015: 34). 바바는 식민담론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강조하며, 더욱이 서구 역사가 생성해 낸 이미지를 고정된 것이 아닌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헤게모니의 불안정성과 가변성을 강조한다(박민수 2015: 391-392).

이러한 이유에서 혼종성 개념이 탈식민주의가 비판하고자 하는 서구중심주의의 이분법적 논리를 거꾸로 답습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근대 일본은 문화의 혼종화를 강한 국가주의적

욕망과 연결해, 항상 다른 문화를 흡수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스펀지 같은 유기체’로 상징했다. 즉, 혼종주의 자체가 또 다른 ‘유동적 문화 본질주의’로 전환되어 아시아에서 일본의 우월성과 독특성을 주장하는 담론으로 봉사하는 결과를 낳았다(이와부치 2001: 68). 탈제국적이고 탈식민적인 것까지 약화시키는 혼종화의 극단적인 개방성이 예상치 못하게 지배자의 논리, 즉 부르주아 자본주의와 근대성 담론의 일부로 포섭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제국주의의 우월성과 지배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게 만든 것이다.

혼종성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과 가변성이 분명하지만 혼종성이 문화 접변상황에서 수용자의 주체적 행위를 드러내는데 유의한 개념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이 혼종화를 활용해 일본만의 제국주의를 피력하는데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혼종화는 행위자의 (때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저항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특정 수용자에게 혼종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으로) 제한적 성격을 지닌’ 언어자본이라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부르디외는 문화자본<sup>3)</sup>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계급분할이 서로 다른 생활양식이나 소비양식과 같은 문화적 요인들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이동에는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문

3) 문화자본은 3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체화된 상태’(embodied state), ‘객관화된 상태’(objective state) 그리고 ‘제도화된 상태’(institutionalized state)이다.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외적인 부(경제 자본)가 오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아비투스’ 형태로 말씨, 억양, 매너, 패션, 취향, 대인관계 등으로 개인적인 부분으로서의 습관을 말한다. 객관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책, 그림, 악기 등 물질적 형태로 전수 가능한 자산으로서 체화된 문화자본이 없으면 향유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졸업장, 학위 등과 같은 제도적으로 인정된 형태를 말하며, 체화된 문화자본이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여 객관적인 것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부르디외 2005).

화적 취향, 소비양식, 문화적 자산과 같은 요소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언어자본은 부르디외가 이야기 한 문화자본에 속해있는 자본 중 하나로서 의미를 가지며, 기존의 논의를 보강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은 문화자본을 사회에서 위세 있고, 고급문화라고 정당화되어 있는 상징화된 기호로 정의하며 매너, 습관, 역량, 언어 능력, 문화지식, 스타일, 학력 등으로 구체화해 문화자본의 지표로 설정했다(DiMaggio 1982; DiMaggio & Mohr 1985; Kalmijin & Kraaykamp 1996; Yamamoto & Brinton 2010 등).

글로벌화는 문화자본의 이동을 불러왔고,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게 하고 경쟁을 야기했다. 새롭게 등장한 문화자본으로서의 영어의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프랑스에서 고급문화로 변별되는 서양 음악과 미술보다 중요도가 더 강조되는 경향을 밝히는 연구(최선태·김유정 2011: 241)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미국 학위가 유럽이나 일본의 학위보다 더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처럼(김중영 2008: 71, 73), 해외 유학이 개발도상국과 저발전국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으로 향한다는 국제적 이동의 흐름을 통해 글로벌화 된 문화자본의 우월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다양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의도적으로라도 다극을 지향하게 되는 경향과 함께 지역적 맥락에 맞는 제2의, 제3의 문화자본이 등장한다. 영어가 미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힘입어 다양한 국가에서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공통어로 지정되고 있더라도, 경제성과 언어의 수용성(acceptability)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양한 언어가 비중 있게 학습되거나 사용되면서 글로벌화한 문화자본으로 대접받고 있다. 아시아국가에서 한국어가 유행하는 이유를 경제적 측면(취직 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남미혜 2010; Gao 2010),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언어사용의 목적이 사회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Clyne 1997).

하지만 언어의 시장가치는 결국 경제적·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Inoue 2000). 다양한 언어가 문화자본으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지배적인 언어’가 아니면, 달리 말해 언어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언어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제약을 받게 된다. 즉 한국어와 같이 언어 위계에서 중간적 지위를 갖는 언어는 문화자본으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제한된 문화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체제 내에서의 복합적이고 불안정해서 변동성이 높은 제한된 문화자본으로서 반주변국가의 언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행위는 이 언어를 습득하여 쓰는 사람들에게 여러 기회와 동시에 한계를 깨닫게 만든다.

### Ⅲ. 한국전공자의 기회와 한계

#### 1. 경제적 기회 및 사회자본 확대

한국전공자들 대다수가 졸업과 동시에 거의 취업이 된다. 한국(어)학과 교원인 트영(Thurong, 여, 1982년생)의 말처럼 “한국어를 전공하면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아도, 졸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약 6천여 개의 한국기업이 활동 중이며(Kotra 2019), 베트남 내 머물고 있는 한인인 15만 명 가까이 된다. 베트남을 주기적으로 오가는 한국인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한국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한국인이 자주 오는 골프장, 여행사, 식당, 쇼핑몰, 호텔, 공항, 상가 등에서 한국전공자들은 항상 아쉬운 재원이다.

한국기업 대다수는 영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현지 언어를 배워

서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한 두 명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한다. 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와 달리 베트남어를 제3세계의 언어이자 쓰임이 적을 것이라는 인식,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비서와 같은 직원을 옆에 둬으로써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상호작용한 결과다. 최근 들어 한국어 전공자의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젊은 법인장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면서 베트남어 습득의 필요성을 느끼곤 있지만, 회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베트남어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기업에서는 공식적인 실무언어(working language)와 절차언어(procedural language)로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영어가 중요하지만 한국 회사에선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필연적으로 한국전공 베트남 직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업무 번역 및 회의 통역, 한국인 고객 접대와 베트남 직원 관리를 위해서도 한국어는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회사의 급여는 영어만 사용하는 회사의 급여보다 높다.

딘(Dinh, 남, 1987년생)은 영어는 다국적기업 취업을 위해 기본이지만, 한국계 다국적 회사에서는 영어사용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베트남에 진출한지 오래된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중(Dung, 남, 1987년생) 역시 한국인이 영어에 능통하지 못해 영어만으로 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어가 가진 높은 경제적 환원성은 한국전공자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 남의 집 일을 했을 정도로 어려웠던 짱(Trang, 여, 1988년생)은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면서 아픈 동생과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고, 유학도 갈 수 있었다. 짱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자마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화장품회사에 취직했고, 높은 급여와

능력을 인정받았다. 남들보다 수월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더 나은 위치를 얻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베트남의 2019년 기준 최저 임금은 전년 대비 5% 상승한 418만동(약 180달러, 1공업지역한정)이다(Kotra 2018a). 처음 현지연구를 진행했던 2013-2014년에는 4년제 대학에서 한국을 전공하고, 한국어 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 TOPIK) 4급 이상일 때 한국 회사가 책정하는 초봉은 400-500달러 선이었다. 한국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과 토픽 급수가 4급보다 높거나 한국 유학(어학연수, 교환학생, 유학)을 다녀온 경우 700-1,000달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임금 기준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초봉이 700-800달러에서 시작해 한국유학경력까지 한다면 1,000-1,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평균 임금이 약 350달러라는 점에서 한국을 전공한 대학생이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전공자들은 그들의 전공을 통해 다른 학과 졸업생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게다가 경력이 쌓일수록 도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값비싼 오토바이, 자동차를 모는 등 한국어라는 문화자본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얻게 해준다.

사적인 관계에서도 글로벌 사회자본은 확대될 수 있다. 한국전공자들은 베트남과 한국에서 학업, 문화교류프로그램 참여,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한국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게 된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성비와 연령대에서 남성이면서 중년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은 한국인과 한국전공자 사이에서 나이를 초월한 유대 관계를 맺게도 한다. 이러한 교류는 오히려 나이가 있는 한국사람이 적극적으로 베트남 학생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말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앞으로의 베트남

남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재원으로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 학생과 친구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의 관계가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이상이라는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양아빠(아버지)’, ‘양엄마(어머니)’, ‘삼촌’ 등으로 불리면서 후견인 관계가 되기도 한다.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는 한국전공자에게 본인들의 일을 도와주는 보상으로 용돈이나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한국 유학과 관련된 정보, 장학금지원, 한국 정착에서부터 유학을 갈 학과까지 정해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후원자(patron)역할을 자처한다. 뒤에 소개할 황비엣의 사례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황비엣은 유학을 할 대학을 선정하고, 입학하는데 양어머니의 친구의 보증이 역할을 하였고, 초기 정착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고, 졸업 후 진로를 위해 양어머니의 지인의 한국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했었다.

황비엣(Hoang Việt, 남, 1992년생)은 호찌민(Hồ Chí Minh)의 고향인 북부의 응에안(Nghê An)성에서 10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났다. 미래가 없는 고향을 항상 벗어나고 싶어 했던 황비엣은 호찌민시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형제 중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황비엣 혼자였다. 대학교 1학년 재학시기 호찌민시 근교에 있는 투득(Thủ Đức)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는 형의 집(냐쯔 nhà trọ)<sup>4)</sup>에서 형수, 아이 둘과 살다가, 반년을 못 살고 독립했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집세 600만동(약 280달러), 핸드폰, 용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황비엣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베트남식 샌드위치(Bánh mì) 집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한 달에 이틀만 쉬면서 매일 5시간씩 일을 하고 받은 월급이 120만동(약 58달러)이었다. 2학년 2학기부터 한국어 과

4) 냐쯔는 하숙집이나 여인숙처럼 작은 규모의 여러 방으로 만들어진 베트남식 쪽방이다. 주로 공단이나 대도시 근처에 많으며, 2-3평정도 크기에 복층 원룸처럼 다락방이 있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외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황비엣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외센터에서 소개한 한국어 과외는 일주일 두 번, 한 시간 반씩만 해도 한 사람당 한 달에 120-180만동(60-90달러)을 벌 수 있었다. 고학년이 되어 통역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 고향집에 적게나마 돈을 보낼 수 있었다.

졸업 후 한국 회사를 6개월 정도 다니면서 돈을 모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한국 양어머니의 도움(비자발급을 위한 신원보증인, 대학 소개 등)으로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학중에도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는 금액의 일부를 동생의 학비와 어머니의 약값으로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황비엣은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 되었다. 황비엣은 한국을 전공하고 활용하면서 최빈계층에서 벗어나는 것도 모자라 가족에게 원조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으로 이동한 것이다. 2017년 유학을 마치고 모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2018년 다시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유학센터에서 취직을 해 한국에서 생활 중이다.

황비엣은 한국을 전공해, 한국인 양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한국인 양어머니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회적 네트워크는 황비엣에게 장학금, 유학, 취업의 기회를 주었다. 한국어를 통한 경제적 기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계층이동의 기회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과외를 통한 금전적 지원도 있지만 베트남 학생으로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장소와 먹거리 경험, 노동자부터 고위층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과의 만남 등은 중년한국인과 베트남 청년의 상호 도우미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 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인맥을 쌓는 것 이외에도 어린나이에 사업을 하는 등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빙(Vinh, 여, 1987년생)은

졸업 후 소규모 건설 회사에 입사했다. 당시 롯데, 삼성, 효성 등을 추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회사를 선택한 것은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입사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빙은 교환학생을 다녀 온 후 과 교수의 소개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베트남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떠나온 한 한국인 중년 여성과 함께 옷 장사를 하였다. 빙이 한국 사이트를 보고 베트남에서 잘 팔릴 수 있는 디자인을 고르면 그것을 태국이나 한국에서 구입한 후 베트남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다. 옷 장사를 하면서 호찌민 시내의 쇼핑센터 대다수에 입점하는 성공을 이뤘지만 2014년 경기 악화로 접었다. 이후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한 후 2016년 다시 잡화 콘텐츠로 가게를 열었으며, 호찌민시뿐만 아니라 하노이, 냐짱(Nha Trang)까지 확장해서 매장을 열어 관리하고 있다.

빙과 동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꽤 많다. 경험도 많고, 한국어도 잘하며, 한국과 베트남 사업가 인맥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빙은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함께 할 동업자를 선택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한 한국전공자 역시 한국인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질 것이다.

한국인과 베트남 한국전공자 간의 친밀한 관계는 한국어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서로의 “지위 교환”(Farrer 2008: 12)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그들 스스로의 지위와 능력을 확장시키는데 활용된다(Lan 2011: 13). 특히 한국전공자는 스스로의 경제적 이득과 지위·능력을 확장시키는데 중년한국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활용한다.

## 2. 불만족스러운 현재 인식 : 현지채용직원과 경제적언어 활용의 불안감

미(My, 여 1987년생)는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직원(현지 채용직원, 이하 현재직원<sup>5)</sup>)이 몇 년씩 일한 경력이 있는 기존 직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이 있다. 한국인 상사와 한국인 손님이 갖고 있는 베트남 직원을 향한 불신 때문에 한국인 현지채용 직원의 역할이 더 커지고, 회사 내 위치도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되는 한국인 직원은 한국전공자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드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입사하자마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직원과 한국인 상사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간 매개자로서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sup>6)</sup>

현재직원과 한국전공자는 같은 미들맨(middleman)<sup>7)</sup>으로서 역할

- 
- 5) 현지채용직원은 한인 해외 기술 이주노동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을 따라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베트남으로 이주해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한 젊은층이 이들이다. 기술 이주 노동 세대처럼 특정 기술을 앞세워 매니저를 할 정도로 특수한 경력은 없을 수 있지만, 영어와 베트남어에 능통하고 한국이나 베트남에서의 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직원의 급여는 적게는 2,000 달러에서 많게는 4,000 달러 이상 받는다.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이 없는 등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과는 신분과 급여 수준이 다르다.
- 6) 한국인 중간 관리자에 대한 연구는 ‘세계시민적(cosmopolitan) 엘리트’(Ong 1998)나 미숙련 이주 노동자에 집중한 초국가주의 연구에 집중 되어 있었다. 그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인의 해외 기술 이주노동은 다국적 상사나 공장의 관리직, 영업직, 기술직 매니저에 대한 연구를 불러일으켜 초국가주의 연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채수홍 2014: 49-50).
- 7) 미들맨 소수자 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은 경제적 행위와 인종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지위 간극’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 둘 간의 경제적 활동을 연결하며 이익을 보는,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자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중세 유럽의 유대인, 동남아시아의 중국인, 미국의 한국인 등이 이러한 미들맨 소수자의 대표적인 예이다(E. Bonacich 1973, D. O'Brian & S. Fugita 1982; 김종영 2015: 23 재인용)

이 겹친다. 업무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어느 한 쪽이 더 적을 수도 있지만 회사 내 위계가 다르고 급여도 다르다. 그런데 한국전공자는 이러한 차이를 실력이나 경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민족적 차이에서 오는 차별로 받아들인다.

민족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이라는 현지배경과 한국인 현재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국전공자가 노력한다 해도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업무적인 것 외에 같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 가져야 할 믿음과 신뢰조차 없는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전공자가 느끼는 좌절감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걸쳐 있는 한국 다국적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한국용 한글 보고서 작성, 한국 상사의 미흡한 영어 실력 등)와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가 처한 현실(완벽하지 않은 베트남 직원의 영어 실력, 말하기에 더 능숙한 한국어, 부족한 상대 문화이해능력 등)이라는 중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인사부 관리를 맡고 있는 이태영 부장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점마다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한명 내지 두 명을 뽑는다고 한다. 급여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이름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넘쳐난다. 그렇지만 실제로 고용된 직원이 얼마 못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태영부장의 말처럼 손님이 오면 손님을 접대하고, 심부름꾼처럼 또는 개인 비서 같은 역할에 실망하기 때문이다.

한국전공자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한국 동료 직원 또는 직장 상사에게서 수시로 개인적인 부탁을 받게 된다. 베트남에서의 일상 생활에선 베트남어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파견으로 근무를 하는 한국 매니저 같은 경우 베트남어를 배우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어민의 도움이 필요



한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점을 한국전공자들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실망하는 부분은 본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다.

응옥(Ngoc, 여, 1986년생)은 한국어·한국학과를 졸업 한 후 작은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좀 더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에 따라 현재의 회사로 이직 해 5년째 다니고 있다. 한국에서 이름 있는 기업이고, 사원 복지나 급여와 회사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곳보다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런데 응옥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국인 상사들이 공사구분을 못하고 개인 심부름꾼처럼 응옥을 대했다. 응옥은 회사일 외에도 식당예약, 옷 수선, 신발수리, 시계수리 심하게는 자녀의 학교 숙제까지 대신 해야 하는 상황에 자존심이 매우 상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국립대학을 졸업한 재원인 자신이 타당하지 않게 욕을 듣게 되는 등 부하직원이 아닌 ‘개인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강등되는 현실에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 것이다. 엘리트로서의 대우까지는 바라진 않을 수 있지만,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은 큰 실망을 안겨준다.

한국어만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회사 내 지위의 한계(승진이 어려운 한국 회사의 구조), 한국어가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는 제2외국어라는 사실 인지, 전공으로서 한국어가 회사에서 쓰일 수 있는 분야의 제한 등은 한국전공자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다. 게다가 한국어의 인기가 사라지거나, 한국기업이 더 이상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경제, 파인앤스, 무역 등을 추가로 공부하거나 영어를 더 공부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시도한다. 한국전공자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결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외국어가 선진국과 저개발국 모두에서 좀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면서(Carreira & Armengol 2001)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가 학습되고 있지만, 새로운 언어사용의 목적

이 사회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는 현상(Clyne 1997)은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베트남에 한국학과가 개설되는 대학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

한국전공자들은 그들이 꿈꿔오고 예상했던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어질 것을 걱정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한국 회사를 다니면서,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남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한국으로 출장도 다니며, 한국 화장품을 사서 쓰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를 즐기고, 돈을 모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면서 효도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줄 ‘자리’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다른 무엇보다 더 크다.

### 3. 도구주의적 합리화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어가 가지는 글로벌 위계로 베트남 사회에서 자신들이 얻게 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본인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가 애초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한국전공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입장과 (불안감 또는 한계를 느끼게 한) 원인을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은 전략적이다. 예상과 다른 전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한국 회사와 한국인을 서열화하는 그들만의 방법에서 드러난다. 한국전공자가 생각하는 한국 회사와 한국인의 서열이 있다. 동하(Dông Ha, 여, 1988년생)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한국 회사,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삼성에 자리를 잡았다. 제조업 공장이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2시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망설였지만, 승진가능성,

셔틀버스,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사원복지 때문에 삼성으로 옮기길 잘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다닐 생각이다. 대기업이 주는 대내외적 이미지, 복지, 승진구조, 급여 수준은 매력적이다. 한국에서도 삼성은 대기업이고 좋은 이미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연히 만나는 한국 사람에게 삼성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 본인을 달리 보는 느낌을 받는 것 역시 삼성에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전공자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했고, 한국어·한국학을 선택해왔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한국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급여보다 복지제도,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상징성과 같이 사회문화적 가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어떤 한국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어떤 한국 회사가 덜 좋은 회사인지 문화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열화 한다.

또한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없이 일을 진행하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일의 방향은 한국전공자로 하여금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그리고 함께 일하는 한국인 상사가 대기업 수준인지 그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sup>8)</sup> 한국전공자들이 하나같이 언급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빨리빨리’ 문화와 업무의 ‘우발성’ 등과 같은 업무의 비체계화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의 다국적 기업과 자주 비교가 되며 한국 회사의 그리고 한국문화의 전근대성을 인식하게 한다.

한국전공자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문화적 해석을 바탕으로 서열화 한다. 히엔(Hien, 여, 1989년생)은 본인보다 영어도 못하고, 베트남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 베트남에 온 한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일과 성공) 못하니까” 올 수밖에 없었고, “이상한 사람과 사기꾼이 많다”고 이야기 한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을 ‘편하’하고 ‘무시’하는 베트

8) 한국에서 대기업이지만, 베트남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규모는 한국과는 다르다. 특히나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현지화와 현지에 뿌리를 내리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와 완성도 등에 대한 만족감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 직원의 행위는 민족적 위계관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한국인 사장이 베트남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

한국전공자의 행위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합리화이면서, 한국어·한국학 전공이 야기할 수 있는 위태로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의 해소는 한국과 한국어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서 완성된다.

응옥(Ngoc, 여, 1986년생)은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좋은 데 가고, 좋은 음식을 먹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베트남에 투자 하려는 사업가나 의사, 베트남인 사업가 또는 고위 공무원 등 어린 나이에는 쌓기 어려운 인맥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나쁜 경험과 좋은 경험을 고루 하게 되고,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이른 사회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전공자는 감상적인 것보다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다.

티(Thi, 여, 1990년생)는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이미 한국어를 너무 많이 공부했고,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울 용기도 자신도 없다. 더욱이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한국 회사에서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는 않지만 동생도 있고, 졸업을 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수 없으니 하루 빨리 취직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한국 회사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내년에 한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갈 계획이고 한국 회사는 유학준비를 금전적으로 도와줄 도구로 생각한다. 2013년 여름에 처음 입사했던 흥(Hung, 남, 1991년생)은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2015년에 한국으로 석사유학을 떠났고, 유학

을 마치고 다시 한국 회사에 취직했다.

꽤 많은 전공자들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행에 옮긴다. 한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려는 생각보다 다른 선배들처럼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돈도 벌면서 한국 유학 준비를 하거나 다른 나라의 다국적 기업에 취직하려는 (실천을 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른 다국적기업의 입사보다 한국 유학은 좀 더 쉬운 선택일 수 있다. 외국 유학을 계획하는 티에게 한국 회사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손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를 철저하게 활용한다.

응옥은 한국 회사에 대해 반발이 심했던 전공자였다. 하지만 2016년에도 2019년에도 계속해서 한 회사를 다니며, 지금은 승진도 하였다. 또한 저축도 더 늘리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가족에게 힘이 되는 행위가 주는 즐거움은 지금의 회사를 다녀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하나인 것이다. 한국 회사에서의 차별과 갈등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응옥의 행동은 한국어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가 선진국과 저개발국 모두에서 좀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도구적 동기부여’(Gardner 1985: 133)로 한국어가 습득되고 있는 것이다(육수현 2015: 242). 대학 졸업과 한국어 능력 또는 한국 유학 및 어학연수 경험을 가진 재원과 한국 기업의 높은 급여는 일종의 ‘위치 합의’(positional consensus)를 통한 경제적 자본의 획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어라는 대안적 선택은 초기에는 만족감을 준다. 많은 교류 기회, 장학금 혜택, 높은 아르바이트 수당으로 인한 윤택한 대학 생활, 한국 음악·드라마·화장품·의류·음식 등 새롭고 유행하는 문물을 먼저 접하면서 세련됨을 획득한다. 졸업 후 높은 급여를 주는 다

국적 기업에 어렵지 않게 취직된다. 그렇지만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미래이다.

특별한 나만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주는 결과는 특별하지 않고 2류 또는 아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자연스럽게 글로벌 헤게모니를 인식하게 된다. 한국전공자는 세계체제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글로벌 위계를 자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한국전공 베트남 청년세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하였다.

#### IV. 정체성의 혼종화와 실천

##### 1. 개인, 가족, 민족적 정체성의 복합화

베트남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호찌민 주석은 수신제가치국 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같은 중국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효(孝)와 충(忠)을 늘 강조하였다. 가족을 중요시하면서, 한편으로 가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익에 따른 실용적이고 유연한 생각과 행동을 요구하였다(이윤범 2014: 223-228). 이러한 호찌민 사상에 영향을 받은 80·90세대들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개인주의적 태도와 함께 가족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전공자들의 생활과 인식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Hân, 여, 1990년생)과 타오(Thao, 여, 1992년생)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시춘기시절 동방신기와 빅뱅의 노래에 위로를 받았고,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장학금을 놓쳐본 적 없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현은 한국대학의 교환학생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도 갖게 되었다. 졸업 후 한국대기업 법인장의 비서, 영사관 행정업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고위공무원을 만나 인맥을 넓혔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동방신기 JYJ와 축구선수 박지성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 유명인을 만나고 외국에 나가는 경험은 현이 글로벌한 꿈을 계속 꾸게 만들었다. 타오 역시 전액장학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다시 학부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라는 목표가 새로 생겼다.

이들은 글로벌 인재로 살아가면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만큼 부모께 효도하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는 욕구 또한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아실현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공부에 초점을 맞춘 적이 많다. 그렇다고 글로벌 인재를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녀는 자아실현을 하면서 부모를 ‘호강’ 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현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라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황비엣(Hoang Việt, 남, 1992년생)은 한국유학 중에도 가족에게 병원비를 송금하고 10남매 중 막내의 학비를 책임졌다. 그의 꿈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렇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졸업한 후에 교수자리가 아니라 급여를 많이 준다는 강사자리를 제안 받고 베트남으로 귀국하였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교수를 위해 박사학위가 급해지고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만큼 풍족하지 않은 급여 때문에 강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 대학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한국대학에서의 업무가 익숙해지면 박사학위과정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황비엣은 지금도 ‘10남매의 기둥’이라는

신분과 ‘교수를 꿈꾸는 글로벌 인재’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쫓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현과 타오 그리고 황비엣처럼, 한국전공자들은 한국어를 활용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과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즉 한국전공이라는 문화자본 덕에 가족이라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거나, 개혁개방 이후의 베트남사회에서 강조되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가치, 경제적 요인, 개인적 욕망이 뒤섞이면서 개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있다.

사회적 시선도 한국전공자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장윤희(2016: 163)에 따르면, 한국어를 학습하는 젊은이들은 한국문화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자각하게 되고 ‘베트남스러운 콘텐츠, 베트남류’(Ibid: 161)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을 깨닫는다. 한국문화에 노출된 베트남 젊은이들이 ‘베트남스러운’ 것을 강조하는 데는 민족주의적 담론 또는 사회적 시선의 영향이 적지 않다. 한류의 반발로 확산되는 반한감정과 더불어 무분별한 외국문화의 모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그것이다.<sup>9)</sup>

장윤희(2016)가 말한 ‘베트남스러운’ 무언가는 순수한 의미의 문화 대 문화의 교류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간 민족적·국가적 우열관계 속에서 상대국가에 대한 반항 또는 거부 결과로 생겨난다. 즉 한국전공자들은 한국문화를 경험하는 반작용으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한국전공자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서 ‘베트남인’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낸다. 한국적인 것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고, 베트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9) 2012년부터 베트남에선 한류팬의 맹목성을 비판하는 언론의 비판이 일어났다. ‘외국 문화의 꼭두각시 노릇(vietnamnet 2012/08/28)’이라는 현실과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 청년세대에게 미치는 영향, 분명한 양면(hanoimoi 2014/04/26)’을 이야기 하며 케이팝 광팬(fàn cuồng Kpop)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행동하려는 동료나 친구의 모습에서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한국인 같이 행동해야 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타오(Thao, 여, 1992년생)의 사례처럼, 한국어를 학습하고 활용한 지 오래된 한국전공자일수록 ‘베트남인’을 강조한다.

한국과 한국어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한국음식·한국화장품·한국옷·한국음악을 누구보다 좋아하지만, 타오는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인’이 아닌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잘 하는 베트남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그녀의 마음이다. 이는 인터뷰한 한국전공자가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다. 그들은 무턱대고 K-pop에 빠져들거나 한국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면서, ‘베트남인’스럽게 한국문화를 즐기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한다. 글로벌 인재로서의 개인적 정체성,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더불어 사회적 담론과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한국전공이라는 문화자본을 활용하는 한국전공자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 2. 다른 베트남인과의 경계 짓기와 정체성의 강화

한국전공자는 베트남인과 한국인을 매개한다. 매개라는 기능으로 인해 한국전공자는 베트남인과 한국인 사이에 끼어 있는(in-between) 존재가 된다. 한국전공자는 여러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끼어 있는 위치를 자각하고 있고, 베트남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최대한 중립적인 모습을 한국인에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한국기업 내에서 베트남직원과 더 친분을 쌓거나 베트남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베트남인 편을 든다.

과농이 반식민민족주의는 서구의 식민 지배계급을 서구에서 교육 받은 ‘토착민’ 지배계급으로 대치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뿐이

며 실제로는 대중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맥클라우드 2000: 116)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계 다국적기업이라는 구조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언어와 문화를 전공한 한국전공자는 또 다른 지배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대중들의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처신을 잘못해 왕따를 당하거나 베트남직원에게 욕을 먹고 쫓겨나 다시피 회사를 그만 둔 사례들이 한국전공자 사이에서 회자되었는데, 한국전공자가 한국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베트남직원 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래서다.

한국전공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베트남직원 스스로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같은 베트남사람이라는 민족적 동질성만 내세워 ‘편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중립적·객관적 자세가 필수적일 수 있는 통역역할에 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글로벌 인재로 스스로를 규정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는 한국전공자에게 이러한 요구는 부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공자는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베트남동료의 비합리성에 실망하고 불만을 드러낸다.

같은 한국전공자에게도 비판적 잣대를 들이대는데, 흥(Hung, 남, 1991년생)은 노력은 하지 않고 높은 월급만을 요구하는 동기들의 태도를 꼬집으며 “베트남 젊은이들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함께 일하는 베트남 공장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경영진과 현장 매니저들 사이에서 ‘게으르고 더럽고 정직하지 못한’ 베트남 노동자(채수홍 2003: 158-159)라는 이미지에 동의하면서,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한다. 한국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기 위해 오늘의 일을 내일로 과감하게 미루는 베트남직원이 달갑지 않다. 한국전공자들이 보더라도 ‘능동적이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는’ 베트남직원

에 대한 한국인상사의 불만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히엔(Hien, 여, 1989년생) 역시 모든 베트남사람은 아니겠지만, 일을 하면서 경험한 베트남사람은 대체로 수동적이며, 일을 많이 안 하려는 성격이라고 느낀다. 하이(Hai, 여, 1989년생)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를 베트남에서 일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상적이고 관례처럼 오고 가는 커미션(commission)을 제안 받은 이야기를 본부장에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의심을 샀다는 것이다. 하이는 스스로를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평하면서, 한국인 상사가 베트남 사람들의 일하는 문화와 베트남사람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영향을 받아 자신을 해고했다고 이해한다. 한국인상사의 판단착오도 문제지만, 하이는 일반적인 베트남사람의 일하는 문화가 더 문제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학연수, 유학,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동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국에선 베트남 사람이 중간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만들고, 한국 학교에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보내고,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그것을 활용해 한국 유학 비자를 받았지만, 공항에서 도망치거나 한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장에 불법으로 취업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 베트남공무원이 제주도에 간 뒤에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뉴스가 베트남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공무원은 나쁘지 않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Hân, 여, 1990년생)는 것은 한국전공자들이 보인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처럼 한국전공자의 행동은 “상대의 문화에 ‘낙인을 찍고 (stigmatize)’, ‘이름을 붙여주면서(labeling)’, 스스로가 처한 문제를 해석하고 저항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강화하려’”(Hall 1991; 채수홍 2003: 159 재인용)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에 불만을 표출한다. 모순적인 점은 이와 같이 베트남직원에 대하여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베트남사람 편’에 서 주기를 바라는 베트남직원의 민족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에서 현지인들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나 ‘보편주의’가 강조되지만(김현미 2005: 106), 한국전공자는 베트남노동자 편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공자가 베트남직원, 베트남문화, 베트남정서를 비판하면서 자신과 다른 부류의 것으로 타자화 하는 행위는 한국 회사의 의도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화되지 못한 베트남인을 타자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하는, ‘문명화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경계 짓기’이다.

다국적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을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현지고용직원의 국가적 맥락을 거세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맥락이 희석된 직원이 다국적기업의 인재이자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공자가 비문명화된 노동태도를 비판하며 베트남인과 경계를 짓는 행위를 국가적 맥락의 거세에 따른 효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왜냐하면 베트남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행위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공자들의 경계 짓기는 오히려 ‘한국전공’과 관련이 깊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문화자본이 한국이라는 반주변부적 위치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내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한국전공자 스스로 글로벌 인재가 되기에 불완전하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적 위계에서 한국과 한국 회사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제한된 문화자본으로서 한국어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전공자가 가지게 된 ‘존재론적 불확실성’이 한국전공자로 하여금 ‘문명화’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다른 베트남인을 타자화하고 경계를 짓게 한다. 자신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정체성인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로서의 모습을 강화하기 위해 동료 베트남인의 비(非)합리적이고 문명적이지 못한 모습에 낙인찍고 타자화하는 문화적 게임을 하는 것이다.

### 3. 주체적인 ‘한국’수용과 저항의 재생산

한국인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향유하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전공자들은 한국인을 비판하며 ‘베트남인’을 강조하는 한편 주체적으로 한국적인 것을 자신들의 일상에서 새롭게 구성하여 유통한다. 특히 한국적인 것의 재구성을 통한 유통이 일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선·후배관계’이다.<sup>10)</sup>

베트남에는 없는 한국의 선·후배는 한국전공자 사이에서는 중요하다. 선배는 무엇이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후배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선배가 전달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회사 및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 월급·업무종류·회사분위기 등을 포함하는 회사정보, 한국 회사에서 겪게 될 회식, 한국인상사와 관계 맺기, 베트남동료와 어울리기, 한국인과 일할 때 주의할 점 등을 포함하는 한국적직장문화 등이 그것이다.

한국인사장들이 성질이 급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한다는 식의

10)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선배와 후배’라는 말 대신 베트남은 ‘Chi (언니 또는 누나), Anh(형 또는 오빠), Em(여동생 또는 남동생)’라는 성별과 연령을 구별해주는 호칭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베트남에도 ‘선배(tiền bối)와 후배(hậu bối)’라는 단어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전공자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선배와 후배’라는 용어를 알고, 그 개념을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었다.

좋지 않은 이미지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선배들에게 자주 들어 이미 형성되어 있다. ‘베트남동료와 어울리기’ 역시 중요한 분야로, 한국 회사를 다닌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베트남 동료는 자신의 상사가 되기도 하며, 그들과 협업이 필요한 상황은 업무전반에서 항상 찾아오기 때문이다. 신입자로서 일에 적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업무 외에도 점심을 먹거나, 휴식시간을 보내거나, 회식을 하거나, 야유회를 가는 일상적 생활에서도 베트남동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트남사람끼리가 항상 문제다”(Thao, 여, 1992년생)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한국 전공자에게 베트남동료는 한국인보다 어쩌면 넘어야 할 더 큰 산일 수 있다.

한국인,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정보도 선후배관계에서 주된 전달 항목이다. 조심해야 할 한국인 명단, 사기를 쳤던 사람, 드라마와는 다른 한국인 이미지, 성희롱을 했던 한국인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인 상사는 “일을 미루지 않고, 집중해서 ‘내 일처럼’ 성실성의껏 일을 처리해주기를 바라며”, “첫인상이 좋으면 끝까지 좋다”(Hông, 여, 1992년생)는 식의 일과 관련된 문화 역시 중요한 핵심 정보다.

한국 회사 입사 전 월급 협상에 앞서 후배들은 선배에게 관련 정보를 얻는다. 선배들은 후배에게 회사의 유명도, 규모, 업무종류 등에 따라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준다.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전공자라면 적어도 초봉은 000달러 이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식이다. 업무에 있어서도 “초과근무(over time, OT)가 한국 회사에서 불가피”하지만, “추가 수당이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베트남직원)의 권리”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베트남 내 한국전공 출신들은 “졸업하고서도 선배는 계속 선배”로

서 생각하고 있으며,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한국인과 일을 하면서 선후배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 베트남엔 없는 한국적인 특징으로 선후배 관계가 수용되었지만, 한국전공자의 정체성을 유통하고 중요한 사회 진출 연결고리이자 한국전공자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어의 지위, 한국어를 전공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벌어들일 수 있는 돈, 만나는 사람들, 하는 자기 경험들을 자기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배 세대들에게 즉, 다른 세대에게 전달된다. 즉 한국 회사와 한국인을 경험하며 한국전공자들이 주체적으로 수용한 전략적 장치들이 한국인과 한국 회사에 대한 저항의 코드로 활용하면서 저항문화가 (재)생산되는 것이다.

동양에 대한 서구의 재현을 통해 서구가 타민족과 관련된 지식을 생산해내는 과정은 다른 국가와 민족들의 ‘열등성’의 ‘진실’을 입증하고 서양의 우월성과 힘에 대한 인식을 보강해주기 위한 매커니즘이다(사이드 1978: 18).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유럽인의 동양관이 갖는 헤게모니, 즉 동양인의 후진성에 대한 유럽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했던 것처럼, 한국전공자 역시 ‘실제’ 한국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구성하여 한국의 ‘실체’로 재생산하면서 일종의 일시적인 권력의 전복을 꾀한다고 할 수 있다. 선후배관계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달함으로써 한국 회사의 필요에 종속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끼인 존재’로서의 주체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과정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는 문화리는 배경에서 하나의 주체가 ‘부동적·확정적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박민수 2015: 34).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아지기보다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구성하고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자아를 표현하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낸다. 제한된 문화자본으로 인해 한국전공자들은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한국과 베트남 모두를 비판

하고 저항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그들은 한국문화의 지배적인 영향뿐 아니라 베트남 내부적인 문제점에도 ‘초월자 태도’(이와부치 2001: 100)를 취함과 동시에 ‘균형 잡힌 관찰자’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저항하기도 한다. 혼종화된 정체성 안에서 자유로운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V. 나가며

“이불 속에 있어야 비로소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걸 알게 된다(ở trong chăn mới biết chăn có rận)”는 베트남속담이 있다. 한 한국전공자는 ‘한국전공자의 현실’을 설명할 때 이 속담을 말하곤 하였다. 케이팝, 케이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반 대중은 “한국어를 배우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며,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상상만큼 멋지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리더가 되고 싶던 한국전공자는 반주변부 국가가 지닌 한계로 인해 코스모폴리탄 엘리트가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인재”로 대접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전공자는 베트남, 한국,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어중간한’ 위치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오히려 더 ‘글로벌’을 지향한다.

호미 바바는 나이폴(V. S. Naipaul)<sup>11)</sup>이 의미한 ‘흉내 내는 사람’(모방자)이 순응하고 과 개종되면서 식민통치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써 제국의 운영 논리에 힘을 실어주지만, 지배자의 언어와 문화가

11) 비디아다르 수라지프라사드 나이폴 경(Sir Vidiadhar Surajprasad Naipaul, 1932년 8월 17일-)은 영국의 인도계 작가로 200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다.



피지배자에 의해 ‘기괴한’(uncanny) 형태로 전이됨으로써 피지배자와 지배자 모두 관찰당하는 대상자가 되어 위계질서를 흐리게 만든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바는 모방자를 식민권력을 전치(displacement)하고 식민지배자를 혼란스럽게 해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체로 바라본다(이경원 2011: 402).

‘흉내내는 사람’으로 치환될 수 있는 한국전공자는 한국어를 통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차별성을 얻으며 사회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국사이를 매개하는 존재이자 무어 길버트가 비판했던 것처럼 한국문화의 ‘순용자’이다.<sup>12)</sup> 그런데 기대와 달리 문화자본으로서 한국어가 가지는 한계와 민족적 위계의식을 근간으로 한 차별을 경험하면서 ‘균형 잡힌 관찰자’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에는 베트남문화와 사람의 불합리한 민족의식강요, 부정·부패 등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성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또한 한국인과 한국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한국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인과 한국 회사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전복하려는 저항도 담겨 있다. 한국전공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관찰자이자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은 세계체제의 반주변국가인 한국의 언어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제한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선택되고 체화된 것이다.

12) 무어 길버트(Moore-Gilbert 1997: 134)는 실제로는 가장 동화된 부르주아 인도인들이 가장 순용적이었고, 영군문화에 비교적 동화가 적었던 하층민이 오히려 전복적인 질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모방이나 혼종성이 피지배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이경원 2011: 440).

〈참고문헌〉

- 기든스, 서튼 · 필립 W. 서튼. 2015.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옮김. 서울: 동녘.
- 김장현. 2012. “한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 김종영. 2015.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과주: 들베개.
- 남미혜. 2010. “베트남 북부 하노이 소재 대학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립하노이 인문사회대·외국어대, 하노이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9: 163-191.
- 맥클라우드, 존. 2000. 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민수. 2015.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9: 23-41.
- 바바, 호미. 1994.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 옮김. 서울: 소명출판.
- 버크, 피터. 2009. 『문화 혼종성』. 강상우 옮김. 서울: 이음.
- 사이드, 에드워드. 1978.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서울: 교보문고.
- 센, 아마르티아. 2006. 『정체성과 폭력』. 이상환·김지현 옮김. 서울: 바이북스.
- 육수현. 2015. “반주변부 언어의 경계 넘기: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의 수용과 활용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5(3): 219-265.
- 이경원. 2011.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과주: 한길사.

- 이와부치 고이치. 2001.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히라타 유키에 · 전오경 옮김.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이윤범. 2014. “호치민 사상과 도이머이.” 『동남아연구』 23(3): 213-240.
- 장윤희. 2016. “한류영향으로 착화된 베트남인의 정체성 재인식 연구-호치민 대학생들의 한국문화 해석과 한국어학습 열기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34: 137-168.
- 바우만, 지그문트. 2000.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서울: 강.
- 부르디외, 피에르.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최중철 옮김. 서울: 새물결.
- 채수홍. 2003. “호치민시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6(2): 143-182.
- \_\_\_\_\_. 2014. “호치민 한인 공장매니저의 초국적인 삶: 일터와 거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0(2): 47-94.
- 최선헌 · 김유정. 2011.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본 영어의 한국적 의미와 구조.” 『문화와 사회』 10: 207-252.
- 프록터, 제임스. 2004. 『스튜어트 홀 지금』. 손유경 옮김. 서울: 엘피.
- 허다트, 데이비드. 2006.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조만성 옮김. 서울: 엘피.
- Carreira, M. C. and R. Armengol. 2001. “Professional Opportunities for Heritage Language Speakers.” J. K. Peyton, D. A. Ranard & Mc Ginnis(eds.),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Preserving an National Resource*. McHenry, IL, and Washington DC: Delta Systems and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109-142.
- Clyne, Michael and Sandra Kipp. 1997. “Trends and Changes in Home Language Use and Shift in Australia, 1986-1996.”

-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18(6): 451-473.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 DiMaggio, P. and J. Mohr,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231-1261.
- Farrer, James. 2008. "From 'Passports' to 'Joint Ventures': Intermarriage between Chinese Nationals and Western Expatriates Residing in Shanghai." *Asian Studies Review* 32: 7-29.
- Gao, Fang. 2010. "Learning Korean Language in China: Motivations and Strategies of non-Korean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3(3): 273-284.
- Lan, Pei-Chia. 2011. "White Privilege, Language Capital, and Cultural Ghettoization: Western High-Skilled Migrants in Taiwa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p. 1-21.
- Inoue, Fumio. 2000. "Market Value of Language." 한국사회언어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집 13-24.
- Moore-Gilbert, Bart. 1997. *Postcolonial Theory: Contexts, Practices, Politics*. London: Verso.
- Kalmijin, M. and G. Kraaykamp, 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69(1): 22-34.
- Yamamoto, Y. and M.C. Brinton, 2010. "Cultural capital in East

Asian educational systems: The case of Japan.” *Sociology of Education* 83(1): 67-83.

<기사>

코트라(Kotra). 2018a. “해외시장뉴스: 2019년 베트남 최저임금 5.3% 인상 예정.” 8월 17일.

\_\_\_\_\_. 2018b. “현장·인터뷰: 베트남에서 뜨는 한국어, 전문 강사는 부족.” 10월 31일.

\_\_\_\_\_. 2019.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2018년 결산 및 2019 경제 전망.” 1월 30일.

Le Van Manh. 2014. “Ảnh hưởng của phim Hàn Quốc đến giới trẻ Việt Nam: Rõ tính hai mặt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 청년에 미치는 영향: 정확한 양면).” 『hanoimoi』. 4월 26일.

Vietnamnet. 2012. “Thảm họa mê muội thần tượng (아이돌에 빠진 ‘참화’).” 8월 28일.

(2019.07.14. 투고, 2019.07.18. 심사, 2019.07.31. 게재확정)

<Abstract>

**Limited Cultural Capital and Identity Politics:  
Facing up to the Reality and the Responding of the Young  
Generation in Vietnam**

YOUK Su Hyun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in SNU)

This research illustrates what changes people in young generation of Vietnam have to go through after they choose to study Korean Studies working as the limited cultural capital. On the one hand, they are able to acquire more economic benefits and expand social relations faster than others through their Korean Studies. On the other hand, they might face up the unstable situation eventually due to the discrimination from Korean companies, the circumstance they can be treated as a subordinate not an elite employee, and the limitation of Korean which is considered as a semi-peripheral language. Those environment might make the young generation in Vietnam to choose and define their identity actively and aggressively. Rather than being passive, they make too strength their identity in their own by utilizing Korean as a tool or by bounding themselves to Vietnamese society. In a such process, the identity of the young generation in Vietnam who majored Korean Studies can be mixed which is so called 'Hybridization.' Moreover, the experience that the young generation in Vietnam have to go through after choosing Korean

Studies, in the process of hybridization of identities, might work as a supporting power to make an act of subjective resistance as a regular activities which the young people in Vietnam who studied Korean Studies distribute and reproduce the image of Korea and Korean companies through the typical Korean cultural codes.

**Key Words:** Korean Major Vietnamese, Hybridization of Identity, Limited Cultural Capital, Reproduction of Resistance

